

사랑의 집대문은 항상 열리여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더욱 뜨겁게 차넘치는 지금 우리 겨레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한평생이 어려와 추추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천만교생을 락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한생을 떠나 존엄높은 공화국의 오늘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 수 있으랴.

얼마나 위대한분을 아버지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페부로 절감하고있는 수천만 아들딸들 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식술, 한피출로 여기시고 극진히 보살펴 주신 해외동포들도 있다.

해외동포를 위한는 일이 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다. 자신께서는 해외동포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일 기쁘고 싶었다는 말을 들을 때 제일 괴롭다고 늘 외우시던 위대한 장군님.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지역의 아들 딸들은 뜻깊은 2월과 더불어 친어머니의 그 사랑을 한없는 격정속에 돌이켜보고있는 것이다.

망국노의 설음이 삼천리강토를 무겁게 짓누르던 피눈물의 그 세월 얼음판에 떨어진 새알과 같이 차디찬 이국의 대지에 뿌려져 인간이하의 천대와 민족적멸시를 당해야 했던 해외동포들과 그 후손들이었다.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2023년 설맞이공연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중에서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던 그 엄혹한 시기에도 자연재해로 하여 동포들이 당한 불상사를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사랑의 위문금도 보내주시고 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야 한다는 사표로써 그 뜻을 풀이하지 말고 보내주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해외교포운동에 위대한 전설로 수놓아져 동포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멀리 있는 자식일수록 더 유심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각별한 사랑을 기울이신 어머니의 혈연의 정은 지역의 아들딸들을 성스러운 조국의 길로 떠밀어준 원동력이었으며 그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누리었고 영생의 언덕에 올랐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은 해외교포운동의 탁월한 영도자이시기 전에 멀리 돈 자식생각으로 시름놓지 못하시며 자애로운 자애로움과 가장이시었다고, 그의 품속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사랑과 온정은 천만자투의 빛이 닦도록 손때도 못다 쓸것이라고 눈물겹게 보이셨었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머니사랑은 오 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해외동포들을 자신의 귀중한 한식술이시고 하시며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축하하며, 축전, 친필서한을 거듭 거듭 보내주시고 뜨겁게 품에 안아 조국에서 진행되는 뜻깊은 국가적행사에도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해와 같은 은총을 해외동포들은 천만년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된것도 해외동포들이 얼마나 위대한 품에 안겨 살고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

조국이 강하여 총련도 강하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에게는 언제나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머니조국의 따스한 손길 이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인 주체 81(1992)년 4월 25일 평양에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혁명부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후 처음으로 뜻깊은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평양으로 쏠리는 가운데 수많은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열병식을 보기 위해 공화국을 찾아왔다.

그 가운데는 총련에서 온 참관단도 있었다.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주체 81(1992)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 중앙의 한 일군으로부터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으로 말미암아 총련에서 동포군중을 조직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애국사업에 몰려있어 적지 않은 애로로 느끼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일

참관단원들이 열병식을 보면서 커다란 충동을 받았다.

나머지 이력에서 조국의 위대성, 강대성을 말로만 전해듣던 그들의 가슴은 터질 듯 부풀어올랐다.

열병식이 있은지 3일이 지난 날 저녁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 참관단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었다.

참관단원들이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항일의 로투사들과 인민군지휘관들이 와있었다.

참관단원들은 성대한 열병식장에서 무장군인의 위용을 감명없이 보여준 인민군지휘관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그들과 뜻을 같이하기를 나누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들이 이번에 진행된 열병식을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 조국에는 강력한 무장력이 있다고,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받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 최

신군사기초로 장비된 강철의 군대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에 강한 무장력이 없으면 내외반동들이 총련을 깔고계 되며 탄압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조국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과 함께 강위력한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요새화되었기때문에 철벽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었다.

참관단원들이 받아안은 격정은 참으로 컸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힘이 없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수난의 그 세월 제일동포들이 당한 민족적멸시와 재난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하나 오늘은 세인이 찬양하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이 되어 높은 존엄과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살고있으니 그것은 바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을 있기때문이다.

진정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이 마음껏 꽃피어나며 불패의 개혁,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제일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 품이다.

조국이 있어 총련이 있고 조국이 철벽이 총련도 철벽이다.

오늘 어머니조국은 회세의 위인이시고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절대적힘을 비추는 불패의 강국으로 세계 위용을 떨치고있다.

총련도 더욱 강화되었다.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강국의 새 역사를 펼쳐가려는 아버지조국을 우리러 보면서 신심드높이 총련 부흥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애국애족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치고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은 천지를 뒤흔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엄에 찬 그 음성!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 수령장사용위의 정예대로, 사회주의위업을 옹위하는 역사의 지킴, 최후대로서의 위용을 떨치며 김일성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일당백군인들의 튼튼한 모습! 지국을 울리고 하늘을 썰며 나아가는 최신식군사기초 장비들!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를 따른것이 무슨 죄로 되는가?》, 《우리를 당장 석방하라!》

투쟁이 계속되자 그들은 우리에게 살인적인 강제금식을 시켰다. 그로 하여 여러 동지들이 피를 쏟으며 목숨을 잃었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그 시각에 나에게 힘을 준것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었다.

원수들이 나의 사상과 신념을 둘러세워보고 기습을 부릴수록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신념을 굳세게 버리고 의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내가 것처럼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성취되는 꿈 같은 그날은 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하한 동지적 의리와 하늘같은 은덕으로 한성토록 그러던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워오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신념과 의

의 강자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높이 내세워주시고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었다.

한없이 따사로운 그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조선로동당창건 75돌 경축행사와 제7차 전국로병대회를 비롯한 중요행사의 대표로 불러주시고 사랑의 선물과 선물들을 가슴가득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민애와 사랑에는 총성과 의리가 따라야 한다. 영원히 변치 않을 신념을 주시고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나의 온넋과 심장을 다 바칠것을 다시금 굳게 다짐한다.

수기 대양의 믿음은 내 신념의 원천이었다

사람들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고 존경하고 내세워주곤 한다. 그 고귀한 부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높은 언덕에 올라설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되고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그로움으로 가슴은 뜨겁게 젖어든다.

사람이 믿는것이 없다면 정의와 애국의 길이라고 하여도 갈라지 않을 것이다. 더우기 바깥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은 지옥같은 감방안에서 살인적인 고문과 전향강요를 당해온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념이 없다면 한순간도 버려지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는 우리의 위엄은 가장 정당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믿음을 심장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때문에 온갖 악형과 곤경이 유혹을 이겨내고 끝끝내 승리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길수 있었다.

나의 고향은 남조선이다. 공화국에는 혈육 한점 없다. 그런 내가 하루이틀도 아닌 수십년세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형속에서도 랑후대공화국을 마음속에 품어안고 수령과 조국을 위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를 따른것이 무슨 죄로 되는가?》, 《우리를 당장 석방하라!》

투쟁이 계속되자 그들은 우리에게 살인적인 강제금식을 시켰다. 그로 하여 여러 동지들이 피를 쏟으며 목숨을 잃었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그 시각에 나에게 힘을 준것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었다.

원수들이 나의 사상과 신념을 둘러세워보고 기습을 부릴수록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신념을 굳세게 버리고 의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내가 것처럼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성취되는 꿈 같은 그날은 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하한 동지적 의리와 하늘같은 은덕으로 한성토록 그러던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워오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신념과 의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를 따른것이 무슨 죄로 되는가?》, 《우리를 당장 석방하라!》

투쟁이 계속되자 그들은 우리에게 살인적인 강제금식을 시켰다. 그로 하여 여러 동지들이 피를 쏟으며 목숨을 잃었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그 시각에 나에게 힘을 준것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었다.

원수들이 나의 사상과 신념을 둘러세워보고 기습을 부릴수록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신념을 굳세게 버리고 의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내가 것처럼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성취되는 꿈 같은 그날은 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하한 동지적 의리와 하늘같은 은덕으로 한성토록 그러던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워오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신념과 의



비전향장기수 고광인의 모습

지배와 굴종, 범죄의 역사는 감출수 없다

남조선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간 미군정

남조선경제를 파국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있는 저들이 이 파국을 《해소》하는 《원조자》로 나서서 《원조》의 울가미로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지배하려 한것이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내세운 음흉한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에 식량과 물가에 대한 통제를 폐지시켜 남조선경제전반을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는 충격적인 계기를 조성하였다.

물가통제의 폐지와 함께 시장의 쌀값은 천정부지 급속하게 뛰어들었다가 1945년 12월에 가서는 시장에서 쌀을 구경할수도 없게 되어 무서운 쌀기근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으며 노동자, 사무원 등 도시근로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돈이 궁하여 쌀을 일찌기 팔아치운 농촌의 소작농들도 기아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미제와 그와 결탁한 모리간상배들의 작간으로 쌀기근

사태가 빚어지고 쌀값이 뛰여오르자 다른 물가도 덩달아 놀라운 오름세를 보이었고 주민들의 생활은 전면적으로 령락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의 고향을 찌낸 군사경찰비, 미군의 방대한 점령비용을 충당하는데 무제한 지출하였다. 또한 《조선은행권》을 랑박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다. 하여 물가지수와 임금주사사이의 간격은 급격히 벌어져 1946년 3월에 이르러 남조선의 물가지수는 일제때인 1936년에 비하여 160배를 기록하였고 그 기간에 임금지수는 물가지수의 4분의 1밖에 오르지 않았다.

간악한 미국은 남조선의 경제생활과 인민생활을 수습할수 없는 혼란속에 몰아넣고는 이 경제파국을 해결하는 《원조자》로 자처해나섰다.

1946년에 미국무부는 남조선에 《재정기술원조》를 줄데 대한 계획을 들고나왔다. 이에 따라 남조선에 2 487만 7 000US\$의 차관을 《경제원조》로 주기로 한 《원조》결정이 1946년 8월 31일에 공포되었다.

미국의 《원조》는 남조선경제를 더욱 예측, 파괴하는데 북부하였고 예측과 파괴는 《원조》확대의 조건으로 되어 남조선은 예측과 파괴가 확대제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속에 걸릴수 없이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남조선경제를 수습할수 없는 혼란속에 몰아넣은 미국은 경제적 파국을 구실로 농민들의 랑후수탈을 노린 《랑후수집제》를 실시하여 일제때

시달리게 되었다.

미군정이 출어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46년 1월 말현재 남조선의 실업자수는 105만여명에 달하였으며 농민들도 교몰소작료와 가렴잡세로 계속 뜯기우는데다가 1946년부터 강제공출이 악착같이 강행되어 대중적기아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당시 남조선의 한 신문은 《조선인은 현재 일제시대에 겪은 고통보다 더 큰 곤난에 빠져있다. ...하루 배급미가 겨우 한홉이되는 일도 아직 어찌되지 못한 일이다.》고 통탄하였다.

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미국 《경제원조협정》 체결반대투쟁에 대한 출판물보도자료

최악으로 얼룩진 대결광의 낙두리

대결에 환장한자에서 나라는 일종의 발작중세라 하였다.

력대로 남조선의 《통일부》라는것이 반공화국대결과 불신, 적대감정성에 앞장 서왔다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있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의 등장과 함께 권병세가 《통일부》수장자리에 들어있는 이후 《통일부》것들의 대결망

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나해 《3대원칙》이니, 《5대핵심추진과제》니 하는 따위의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내놓고 《흡수통일》야망을 포퓰리즘으로 추구한것도, 그 무슨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형식상로나마 제정한 《대북비라살포금지법》을 폐기하겠다고 기업을 호한것도,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떠들며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광분해온것도 다 틀어닌 《통일부》이다.

지어 해외에 나가서까지 윤석열역도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구걸해서 초안에 공화국을 《적》으로 조이박은 군부것들을 두둔하는 해괴한 나발까지 서슴없이 불

결에 이골이 난 권병세파가 《통일부》 장관자리에 앉아있는것과 무관하지 않다.

력대 남조선의 《통일부》장관치고 반공화국대결에 매달리다가 비참한 운명을 당하지 않은자가 없다.

권병세도 지금 그 범죄와 파국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가 후과를 감당하지도 못할 망발을 저 누어놓을수록 죄라는 더 늘어나고 치르어야 할 대가 역시 그만큼 커질뿐이다.

한 광일